

中國의 江南文化와 美術을 찾아서

- 한국대학박물관협회 학예연구원회 제2차 답사기행기 -

오 일 환*

1999년 12월 13일(월)부터 18일(토)까지 5박 6일간의 일정으로 한국대학박물관협회 학예 연구원들의 제2차 답사가 진행되었다. '중국의 강남문화와 관요를 찾아서-중국의 월주요와 고려청자'라는 커다란 제목을 가지고 시작된 제2차 답사는 허영환 협회장을 비롯하여 김홍남 관장, 유광열 관장, 나선화 회장을 비롯하여 28명이 참가하였다.

제2차 답사는 짧은 시간 속에서 상해-항주-영파-상우-소주-남경-상해로 이어지는 2천여 km의 기나긴 육로 여정이었다. 간략하게 답사 일정대로 내용을 소개하고자한다.

답사 시작 전날(12월 12일)에 허영환 단장을 중심으로 답사지역 및 이들 지역의 문화에 대한 사전정보와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성신여대 박물관에서 예비모임을 진행하였다. 예비모임에서는 간단하게 만들어진 답사지를 기초로 하여 2차 답사의 목적과 지난 1차 답사 지역이었던 북경과의 역사와 문화 및 지역적 차이 및 특성에 대하여 허영환 단장의 강의가 진행되었다.

첫째날(12월 13일) 김포공항에 모여 출국수속을 진행한 후 상해의 홍교공항에 도착하였다. 먼저 상해박물관으로 향하였다. 상해박물관은 1952년 중국고대예술박물관으로 개관한 이래 1996년 현재의 인민광장에 한나라 동경 모양의 지붕과 상나라 청동 술모양을 형상화한 본관으로 지어졌다. 10개의 진열실에 21개의 전문진열실, 3개의 특별전시실을 갖추고 있는 상해박물관은 약3만8천㎡의 건축면적에 지하2층, 지상5층, 높이 29.5m의 규모이다. 소장품은 12만여점으로 1층에는 중국고대청동기관 중국고대조각관이 있고, 2층에는 중국고대도자관 호혜춘선생이 기증한 잠득루도자관이 있다. 3층에는 중국역대서예관 중국역대회화관 중국역대채인관이 있고, 4층에는 중국역대전폐관 중국고대옥기관 중국명청가구관 중국소수민족공예관 등이 있다. 그리고 1층에는 각종 기념품과 서적들이 풍부하게 진열 판매되고 있었다. 시간관계로 인하여 전공이나 관심분야별로 나누었다. 이에 허영환 단장은 회화, 유광열관장(해강도자미술관)은 청자 등으로 팀을 이루었다. 특히 상해 박물관의 陸明華선생은 바쁜 시간 속에서 1시간이나 넘게 '중국의 강남지역 도자기'에 대하여 그 특징과 구분에 대하여 강좌를 진행해 주셨다.

* 경희대 박물관 학예사

저녁식사후에는 황포강가의 외탄에 이르렀다. 황포강에는 유람선 및 작은 배들이 설재없이 줄을 지어 오르내리고 있었다. 화동경제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황포강 중심의 포동지역은 양자강 내륙을 개발하기 위한 진진기지로써 동방명주라는 전파탑을 중심으로 고층빌딩군이 빼곡히 자리하고 있었다. 외탄은 외국계 은행건물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으며, 해가 저자 형형색색의 조명등이 건물을 밝혀주어 그 고색창연한 아름다움을 더해주었다. 김홍남 관장은 시카고와 비슷하다는 인상을 말씀해 주셨고, 허영환 단장은 상해에서 가장 오래된 황포강가의 호텔에 대한 추억을 말씀해 주셨다. 5년만에 다시 가 본 상해는 거대한 고층빌딩 공사 현장이었다.

둘째날(12월 14일)은 아침 일찍 항주로 출발하였다. 먼저 남송관요박물관에 들렀다. 남송관요박물관은 서호남쪽의 오구산 서쪽기슭에 자리하고 있었다. 약1만5천㎡의 면적에 자리한 1층의 아담한 박물관은 1985년 10월부터 발굴을 시작한 후 1992년 10월에 정식으로 개관한 중국 제1의 도자기 전문박물관이다. 남송관요는 송나라 황실에서 설치한 전문적인 어용가마로 송대, 5대의 유명한 도자기 가마의 첫째로 꼽혀왔다. 관요의 도자기는 소성된 형태가 단정하고 얇은 태토에 두터운 유약질이 그 특징을 이루었다. 4천㎡의 전시면적에 3급이상의 유물 106점과 8천여건의 표본과 복원품을 소장하고 있는 남송 관요박물관은 역대 고도자 84점이 전시된 역대도자실 남송관요실 고도자재현실 발굴유지 가마유지 등 5개 부분으로 나뉘어 있었다. 남송관요박물관에 근무하는 吳曉力선생의 설명 속에서 우리의 도자기에 대한 비교와 차이점 그리고 어떠한 특색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하여 유광렬 관장과 허영환 단장의 보충설명이 이어졌다.

오후에는 절강성박물관에 들렀다. 항주 서호의 고산남쪽 기슭에 자리잡고 있는 절강성 박물관은 1929년 본래 청나라 황제의 행궁과 강남의 유명한 장서루인 문관각이 있던 곳에 건립되었다. 절강성박물관은 역사문물을 위주한 인문과학박물관으로 10여만점의 소장품을 가지고 있다. 전시실은 역사문물관 서화관 청자관 공예미술관 전폐관 등 독립건물로 나뉘었고, 하모도문화와 양저에서 출토된 대량의 신석기유물이 자리하고 있었다.

박물관에서는 또 절강성문물국 주최로 ‘중화인민공화국건립50주년’을 기념한 ‘절강문물정화(명품)전’이 열리고 있었다. 그리고 박물관에 보관중인 40여만건의 절강문물을 중심으로 지난 99년 11월 절강성박물관건립 70주년을 기념하는 경축활동과 함께 ‘회고와 전망- 한세기 교류의 박물관’이라는 세미나를 병행하고 있었다.

서호와 육화탑을 둘러본 다음 저녁시간에는 남송관요의 발굴 담당자였던 중국의 저명한 도자기 전문가인 朱伯謙선생을 초청하여 ‘남송교단하관요’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불편한 몸인데도 불구하고 꼼꼼하게 실물자료와 함께 관요의 특징과 시대적 구분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다.

셋째날(2월15일)은 영파로 향하기 위하여 일찍 출발하였다. 그러나 항주시내를 막 벗어나자

마자 안개로 인하여 더 이상 나아가기가 어려웠다. 불과 5m 앞도 내다 볼 수 없는 극심한 안개는 조조의 군대로부터 10만개의 화살을 단숨에 얻어왔다는 제갈량의 지략이 생각났다.

안개 속에서 기다리다가 10시 넘어서야 고속도로를 타고 영파로 향하였다. 예전에 명주라 불리던 항구도시인 영파는 시박사를 통하여 고려를 비롯한 동남아의 여러나라와 교역이 이루어지던 곳이다. 따라서 고려에 대한 전문록인 『고려도경』을 지은 송나라의 서긍도 이 항구에서 출발하였으며 고려의 사관지도 있다.

먼저 전국중점문화보호단위로 중국 현존의 가장 오래된 장서루인 천일각으로 향하였다. 천일각은 2만5천㎡의 면적에 8400㎡의 건축물로 이루어졌고 장서문호구 원림휴한구 진열전 시구로 크게 나뉘어 있다. 장서문호구(북구)는 동명초당 사마제 범씨고택 천일각 존경각 명주비림 천진제가 있었다. 원림휴한구는 동원과 남원으로 나뉘었는데, 동원은 1959년부터 조성되기 시작하여 백야정 옹휘당 등이 1986년에 개방되었다. 남원은 1997년에 만들어졌는데 수북각 진음관으로 구성되었다. 진열전시구(남구)에는 부용주에 영파공예미술이 진열되어 있고, 진씨지사에는 영파의 사적이 5개 부분으로 나뉘어 진열되어 있었다. 특히 진씨지사에는 16개의 두공으로 구성된 회대가 있었는데 고려대 박물관의 김우림연구사가 유창한 노래를 선보였다. 또한 천일각 서화관에는 장원청 운재루 등 6동의 건축물이 있었는데 천일각에 보관되었던 역대의 서화와 유명인사들의 예술품이 전시되고 있다고 한다.

천일각을 뒤로 하고 상우로 가는 길에 하모도유적박물관의 안내팻말이 보였다. 답사를 준비하면서 발굴현장을 보겠다고 여러 차례 협조 요청을 한 끝에 참관을 하기로 한 상우발굴지로 향했다. 영파에서 상우로 향하는 고속도로 주변에는 기와 공장이 상당히 눈에 많이 띄었다. 유광열 관장은 조선기와의 특색에 대하여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 등에 대하여 설명을 아끼지 않으셨다. 오후 5시쯤에 상우라는 곳에 도착하였는데 다시 안개가 끼기 시작하였다. 안내자를 만나기로한 주유소 앞에서 1시간 가량 지체를 하였다. 칠혹같은 어둠 속에서 좁고 구불구불한 비포장길을 2시간 가량 달렸다. 현장 관리인과 함께 손전등 2개에 의지하고 발굴현장으로 향했다. 현장관리인이 설명하면 안내자가 설명하고 다시 중국선생을 거쳐 비로소 우리말로 전달되었다. 4명이나 거쳐서 비로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소통. 정말 답답하기도 하고 한숨이 절로 나왔다. 유광열 관장과 도자기를 전공하는 학예원들이 즉석에서 우리의 가마구조와 만드는 방법 등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셨다. 이미 발굴이 끝나고 정리가 된 덩그러니 놓인 가마 1기를 보기 위해 여기까지 왔던가. 우리가 바라던 발굴현장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것을 본 것만으로도 만족해야 한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발굴현장에 가본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인 것을 본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산길을 나와 국도를 타고 항주로 돌아오는 길에는 안개가 벌써 자욱하게 깔려 있었다. 밤 10시였다.

넷째날(12월 16일)은 소주를 거쳐 남경까지 가야하는 답사중에서 가장 멀고 힘든 여정이었다. 안개가 자욱하여 고속도로를 정상적으로 달릴 수가 없었다. 국도를 타고 소주로 향하

면서 도로를 가로질러 흐르고 있는 운하의 배들을 바라보면서 이에 대한 역사와 문화의 강의의를 들었다. 허영환 단장과 김홍남 관장은 5시간 이상 걸리는 길에 '중국회화 5천년사'를 비롯하여 강남 화단의 특징들에 대하여 강의를 해주셨다.

소주에 도착하여 '오중제1경'이라는 호구공원에 들었다. 원래는 해용산이라 하였는데 춘추시기 오나라의 행궁으로 오왕 부차의 아버지인 염려가 이곳에 묻혀 있다한다. 백호가 머물렀다하여 붙인 호구공원의 호구탑은 높이가 47.5m로 운암사탑이라고도 한다. 중국의 피사탑이었다.

한산사와 즐정원을 둘러보고 소주실크박물관에 들었다. 1981년부터 건립을 준비하면서 실크관련 각종 전시회를 개최하였고, 1991년에 강남의 옛도시와 현대적인 모습이 어우러지게 신축되었다. 입구에는 실크관련의 백옥 여인조각상이 있고 전시실은 실크로드의 여정을 상징하듯 동서방향으로 배치되어 있다. 고대관 잠상관 직조방 현대관 근대관-명칭거리 등 7개의 전시실에는 실크유물과 함께 복원된 직조기들이 있었다.

밤늦게 버스에 올라 남경으로 향하였다. 4시간을 다시 달려야하는 버스 속에서 허영환, 김홍남, 유광열 관장들의 강의시간이 마련되었다. 또 드넓은 지평선을 달리는 버스 속에서 동그런 달을 보고 기울이는 고량주잔에는 고담준론이 가득넘쳤다.

남경에 도착하자마자 10시부터 南開大學 劉毅교수의 '중국의 차그릇'에 대한 강의를 진행되었다. 역사적으로 차 마시는 방법의 변화와 차그릇 만드는 방법 등에 대하여 실물과 함께 강의를 해 주셨다. 우리와 일본, 그리고 중국 차그릇의 차이점과 제작방법 등에 대한 토론이 새벽 1시까지 계속되었다. 문화에 대한 비교연구의 필요성과 용어에 대한 통일 작업 등 산적한 문제들이 부수적으로 터져나왔다.

다섯째날(12월 17일)은 중산능 명효능 남경박물관 등을 보고 상해로 돌아가는 날이다. 명효능은 명나라를 건국한 주원장의 능으로 신도가 니은(ㄴ)자 형태로 굽어져 있었다. 신도에서 멀지 않은 곳에 손권의 묘가 자리하고 있었다. 劉毅 교수가 명효능과 중국 황제능 상설제도의 특색에 대하여 강의하였다.

남경박물관은 1933년 채원배의 건의로 중앙박물관으로 준비되었다가 1950년 국립남경박물관으로 개관하였다. 본래 자연 인문 공예관으로 준비되었으나 항일전쟁 등으로 인하여 인문관만이 건축되었다. 13457㎡의 면적에 본관은 하북성 계현의 독락사 산문형태를 띠고 있다. 38만여점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으며, 4804㎡의 진열실 열람실 자료실 도서실 수장고 등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정문 입구 좌측편에 현대적인 새로운 시설로 개방하고 있다. 남경박물관의 관장을 만난 후 각자의 전공과 관심영역으로 나누어 관람을 하였다. 남경박물관은 박물관학에 대한 논문과 관련전문서적을 상당수 편찬하고 있으며, 강소성박물관 고고학회 민속학회가 발간하던 『문박통신』을 제59기부터는 『동남문화』로 개명하여 발간하고 있다. 서적코너에는 유물별로 새로이 발간된 도록들이 상당히 많이 보였다.

남경태평천국박물관은 1951년부터 기념관으로 준비되다가 1961년 태평천국기의 110주년을 기념으로 성립되었다. 이곳은 본래 명초 개국 공신이던 중산왕 서달의 서화원이었는데 동쪽에는 5개의 고대 건축물이 있고, 서쪽에는 건륭제가 쓴 瞻園이라는 정원이 있다. 태평천국시기에는 동왕 양수청이 머무르던 곳이다. 1만5천여㎡의 면적에 1200㎡의 진열실이 6개로 나뉘어 태평천국의 역사가 시대순으로 진열되어 있다. 42건의 1급문물과 2천여점의 유물 이외에 복제품 사진자료 도서 당안자료 등을 소장하고 있다.

박물관에서 멀지 않은 회수라 불리던 진회하로 향하였다. 진회하는 진시황이 남경을 점령하고 하천을 뚫어 양자강과 통하게 하였다. 10리에 걸친 진회하는 화방들과 야박교 문원교 문덕교 등이 만들어졌고, 사통팔달의 수운길을 이용하여 경제적인 중심지로 성장하였다. 이에 유명한 화가들이 진회하를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한다. 이 지역의 명청시대 화단을 연구하신 김홍남관장은 진회에 흐르는 물을 바라보며 당시를 회상하는 듯하였다.

남경일정을 마치고 점심식사후 상해로 향하는 버스 속에서 답사에 대한 정리에 들어갔다. 짧은 일정 속의 매우 바빴던 답사는 허영환단장을 비롯한 여러 선생님들의 협조 속에 무사히 마치게 되었다. 비록 출발시간을 준수하기 위하여 강제로 시행된 벌금제도, 인원 확인없이 출발하였던 고속도로 휴게소, 발굴현장에서 단련된 체력을 바탕으로 특유의 답사능력을 발휘하던 밤거리문화 답사, 그러나 버스로 이동하는 시간에도 기록과 촬영, 몸이 불편하시면서도 평생을 익혀온 공부를 쏟아부어주시는 여러 선생님들의 연속된 강의 등은 이번 답사의 커다란 성과일 것이다. 지난해 1차 원명청대의 북방문화의 중심지인 북경에 대한 답사에 이어 이번에는 강남문화에 대한 답사를 하였으니 제3차는 서북지역의 한당문화를 답사해 보자는 허영환 단장의 제안과 함께 '중국강남지역의 관요를 찾아서'를 마무리하였다.

오전 11시 상해 홍교공항을 떠난 비행기는 오후 2시 김포공항에 무사히 도착하였고 우리 일행은 아쉬운 작별인사를 나눴다.